

# 《경성기담》선정기

## ‘역사는 이국異國’ …그곳 불변의 인간성의 기록

### 9월 이달의 책 후보 도서

- 《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철학을 해왔나》  
박이문 지음 | 삼인 | 508쪽 | 값 23,000원
- 《일본문화의 힘-세계는 왜 J컬처에 열광하는가》  
윤상인외 | 동아시아 | 244쪽 | 값 12,000원
- 《꽃미남과 여전사》 (전2권)  
이명옥지음 | 노마드북스 | 208쪽(1권) 256쪽(2권) | 값 각권 12,500원
- 《조선의 문화공간》 (전4권) 이종목 지음 | 휴머니스트 | 각권 500쪽 내외 | 값 1권 20,000원, 2권 22,000원, 3·4권 23,000원
- 《경성기담》 전봉관 지음 | 살림 | 348쪽 | 값 12,000원
-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교수신문 엮음 | 생각의 나무 | 360쪽 | 값 18,000원
- 《한국의 정치변동》  
김영명 지음 | 율유문화사 | 436쪽 | 값 17,000원
- 《한국사회 권력이동》  
박길성, 한준 외 지음 | 굿인포메이션 | 280쪽 | 값 14,800원
- 《새벽 세 시의 사자 한 마리》  
남진우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56쪽 | 값 6,000원
- 《주름》 박범신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478쪽 | 값 13,000원

### 박상익 교수

#### 1. 《경성기담》

전봉관 교수가 《황금광시대》에 이어 또 역작을 출간했다. 전작이 1930년대의 ‘골드러시’를 다루었다면, 이번 작품은 일제 강점기 4건의 살인사건과 6건의 대형 스캔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신문과 잡지에서 보도된 기이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다. 4건의 살인 사건은 조선인이 조선인을 살인한 사건(죽참정 ‘단두유아’ 사건), 조선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안동 가와카미 순사 살해 사건),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최대의 연쇄 살인 사건(살인마교 백백교 사건) 등이다.

사건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역사는 이국(異國)이다. 불과 70년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낯설고 기이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성은 불변이라는 교훈을 던져 준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돈과 여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흥미 있는 이야기 하나. 일제 시대에는 간통죄가 부인의 부정(不貞)에만 적용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간통죄로 고발할

### 선정위원별 1~3위 추천서

#### 박상익 우석대 교수

1. 《경성기담》
2.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3. 《한국사회 권력이동》

####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

1. 《마주보는 한일사》
2. 《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
3. 《일본문화의 힘》

#### 신종호 월간 《북새통》 편집장

1. 《조선의 문화 공간》
2. 《마주 보는 한일사》
3. 《꽃미남과 여전사》 (전2권)

#### 조우석 중앙일보 문화부 부장

1. 《경성기담》
2. 《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
3. 《조선의 문화공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말이다. 남편을 간통죄 처벌대상으로 올리는 문제가 1930년 일본 의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첩을 둔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로 입법화 되지는 않았다. 남편과 부인 모두 간통죄의 처벌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다. 형법 제정 당시 남편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간통죄는 국회의원 재석원수(110명)의 과반수(56표)에서 겨우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남자들이란….

#### 2.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어언 50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정작 한글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난 후의 일이다. 그러나 해방된 후에도 일본어를 통해 학문을 배운 1세대 학자들이 우리 학계의 주류를 형성했고, 한글 독서보다 일본어 독서가 더 자유로운 그들에게 외국고전의 한글 번역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 후 미국 등지에서 서양학문을 익힌 세대가 등장했지만 그들 역시 번역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미국인 교수에게 배우고 돌아온 학자는 로크, 흄스에 대한 논문은 써도 번역은 전혀 관심 밖이다. ‘기지촌 지식인’이란 이를 두고 말할 일 것이다. 이렇게 굳어진 학계의 관행 탓일까.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한적(漢籍) 가운데 아직도 70퍼센트 가량이 번역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황폐한 여건 속에서 『교수신문』이 큰일을 해냈다. ‘고전번역비평’이란 이름으로 주요 고전번역서에 대한 평가 작업을 기획해 2005년 4월부터 연재했고, 그 1차분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나 우리나라 교수 사회가 번역 문제에 이토록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작업은 21세기 초 한국 문화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리라 전망한다. 물론 제비 한 마리로 봄이 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출발점 삼아 ‘모국어 콘텐츠에 기여하는 학문’의 전통이 우리 학계에도 조금씩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본다.

#### 3. 《한국사회 권력이동》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해방 이후 20세기말까지 수평적 권력교체가 거의 없었던 한국 사회였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정치세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사회세력간의 헤게모니 쟁투가 폭발하면서, 권력이동 담론이 언론계와 학계에서 활발히 오가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권력이동 담론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당파적이었다고 보고 권력이동의 개념, 토대, 그리고 지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몇몇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에게 권력이동의 축으로서 '이념'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보수와 중도의 대립은 전면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도적 이념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도의 입장은 보수와 진보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진보주의적 '명목' 뒤에는 보수주의의 '실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이런 의미에서 '왼쪽 감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항간의 비아냥거림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는 것이다. 편집자의 말대로 이 책이 '권력이동의 눈으로 한국의 사회변동을 해석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이 돈 주고 사서 읽을 것을 기대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문 학술지에서나 볼 수 있는 진부하고 구태연한 '논문식 글쓰기'를 시종일관 견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책의 필자들 중 상당수는 '권력이동'에 완강히 저항하는 보수 지식인으로 분류해야 할 듯하다.

## 윤지관 원장

### 1.〈마주보는 한일사〉

역사가 하나의 해석이라면 역사기술은 역사가의 입장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특수한 인접국의 역사기술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 지배되어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양국의 역사교사들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산출해낸 이 새로운 한일사는 제목 그대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타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역사기술을 위한 한 새로운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두 민족이 인접국으로서 겪은 역사적 충돌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을 피하고 있는데, 대중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

번역은 우리 문화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번역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상 번역의 수준에 대한 점검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우리 교육이나 독서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고전들의 번역수준을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도 좋은 번역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넓게는 번역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우리 번역풍토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번역을 통해서 고전을 접하게 되는 한편으로 번역비평을 통해서 고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점에서도 추천할 만하다.

### 3.〈일본 문화의 힘〉

일본문화의 유입에 대한 경계라거나 비판이 있어 왔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왜 일본문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한 물음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일본문화와의 관계는 늘 식민성의 문제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 책은 그 문제를 괄호치고 현 단계에서 일본문화의 매력과 성공요인을 그 자체대로 개괄해본 점에서 일본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 신종호 편집장

### 1.〈조선의 문화 공간〉

10년 남짓 수백 종에 달하는 문집을 섭렵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쓴 결과라는 저자의 말이 믿음을 주고, 조선의 문화사를 땅과 집이라는 공간으로 압축해서 풀어내는 관점이 신선하여 독서의 마음을 재촉하는 흡족한 책이다. 조선 개국 후 태평성대와 격랑의 시절을 두루 관통하면서 수양과 풍류를 즐기던 문화공간으로서의 땅과 집에 대한 현장 답사이면서, 조선 문인 87명의 전기라는 것이 이 책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땅과 사람이 만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을 글로 남기는 조선 선비문인들의 문화생활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거주공간만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의 집과 정원에 대한 안목이 조선 문화를 찬란하게 이끌어왔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 2.〈마주 보는 한일사 1, 2 - 화해와 공존을 위한 첫걸음〉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집필한 한·일 교류사이자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양국의 '공동 역사책'이라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이자 의의다. 자국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국사' 편찬의 협소한 틀은 필연적으로 이웃 국가의 역사와 충돌하여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역사 분쟁을 뛰어넘기 위해 공동의 역사적 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작업이다. 선사시대부터 개항까지 18개 주제로 촘촘히 엮어낸 한국과 일본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통해 역사의 본질은 단절이 아니라 교류이며 상호교섭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꽃미남과 여전사〉(전 2권)

남성 속에 내재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꽃미남'과 여성 속에 내재된 남성성을 상징하는 '여전사'라는 인식의 틀로 신화, 종교, 예술에 나타난 인간의 원형은 '남녀양성'이라는 것을 흥미롭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해석의 독특한 관점만큼이나 볼거리가 많다.

## 조우석 부장

### 1.〈경성기담〉

기왕에 진행돼온 신문회사 쪽의 역사서 부문에서 또 한 번의 진화를 이뤄냈다. 고만고만한 변주를 거듭해온 유사본들의 등장에서 식상함을 느껴왔는데, 이 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과 함께 대중적 흡인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평가받아야 한다.

### 2.〈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

현재 이뤄지는 서평들은 리뷰어 가치판단이 취약하다. 고전 번역에 대한 서평도 어스비슷하다. 쏟아지는 번역본 중 최고의 텍스트를 찾아내려한 시도 자체가 흥미롭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남을 것이지만, 그런 축적이 거듭될 때 오는 효과는 무시못한다.

### 3.〈조선의 문화공간〉

인문학 출판이 더 없이 위축된 지금 상황에서 가히 돋보이는 저돌적 투자에 속한다. 판 자체를 키우려는 노력과 함께 내용도 통상적인 접근에서 훌쩍 벗어났다. 조선이라는 시대를 엔지니어링했던 사대부들의 초상화가 리얼하게 다가온다. 